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출판의 변화, 교양과학에서 교양공학으로

과학책을 펴내는 출판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회사를 세 개만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지성사, 승산, 지호의 이름을 들 것 같다.

우선 이 세 출판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큰 돈벌이가 되지 않는 과학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게다가 신문사 문화부 근처를 열썬거리면서 신간소개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잡음도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책의 품질로 진검승부를 펼친다는 측면에서 이 세 출판사만큼 소중한 존재도 과학출판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줄로 안다.

지성사는 아마도 국내 필자가 저술한 과학도서를 가장 많이 펴낸 출판사가 아닌가 싶다. 외국 과학책을 얼렁뚱땅 번역해 내면 돈벌이가 쉬울 텐데 만만치 않은 기획력이 요구되는 국산 과학책을 고집스럽게 만들어내는 지성사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생명을 사랑하는 어린이 문고>의 책 표어인 '열려라!' 가 주문처럼 신통력을 발휘해 돈방석에 앉으면 좋으련만.

승산은 대형출판사도 머뭇거리릴 정도로 두꺼운 외국서적, 예컨대 《엘레гант 유니버스》와 《뷰티풀 마인드》를 크게 성공시킨 100퍼센트 과학전문 출판사이다. 특히 《발견하는 즐거움》 등 리처드 파인만의 명저를 잇달아 펴내 톡톡히 재미를 보기도 했다. 지성사 못지않게 과학출판에 전념하는 보기 드문 출판사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호는 색깔이 분명하고 독특한 향취를 지닌, 작지만 크게 느껴지는 출판사이다. 인문서도 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 높은 과학책을 열심히 펴내고 있다. 특히 문명비평에 가까운 양서를 기

획하는 숨씨는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령 《소금과 문명》《설탕과 권력》《신들의 열매 초콜릿》《악마가 준 선물 감자 이야기》《의자》《연필》 등은 '사소한 것들의 역사'를 통해 인류문명의 속살을 예리하게 드러내 보인다.

특히 《연필》은 헨리 페트로스키의 대표작이다. 지호는 페트로스키의 저서를 여러 권 더 펴냈다. 《포크는 왜 네 갈퀴를 달게 되었나》《디자이너 세상을 바꾼다》《서가에 꽂힌 책》《이 세상을 다시 만들자》《인간과 공학 이야기》는 지호가 펴낸 페트로스키의 책들이다.

헨리 페트로스키는 미국에서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의 책들은 모두 공학기술을 다룬다. 지호가 의도했던 안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학 대중화의 깃발을 치켜든 출판사로 자리매김되는 것도 바로 페트로스키 교수의 저작을 꾸준히 발간했기 때문이리라.

과학기술, 공학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독자들도 공학기술, 공학 대중화라는 표현은 낯설게 여겨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나라 과학출판 시장은 주로 과학책만 내고 공학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

과학과 공학을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학의 이공계 학과 분류방식이다. 이과계열에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천문학이 있고 공과계열에는 전자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과의 학문은 과학에 해당되고 공과의 학문은 공학에 해당된다.



책방의 과학코너에 한번 둘러보라.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책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 않은가. 저자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한, 어슷비슷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이런 책들을 몽땅그려 '교양과학' 도서가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학도서는 헨리 페트로스키의 저서와 몇몇 번역서를 제외하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른바 '교양공학' 도서가 별로 출간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교양공학' 도서로는 《나노기술이 미래를 바꾼다》(로보사피엔스)(이상 김영사) 《에코에너지》(생각의나무) 《로봇의 행진》(한승) 《21세기 오디세이》(한국경제신문) 《나노테크노피아》(세종서적) 《21세기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물》(이상 나노미디어)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책들도 교양과학 책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교양과학 책의 위세에 밀려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출판계가 교양공학 도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교양과학 도서시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그 탈출구가 교양공학 도서시장이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공식을 이리저리 모양만 바꿔 소개한 책들에 대해 독자들이 고개를 돌릴 때가 멀지 않은 성싶다. 맨날 칠판지가 어찌구 블랙홀이 저찌구 하는 엇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그만 찍어낼 때도 되지 않았는지. 교양과학 도서가 좀 팔린다고 해서 너도나도 동어반복의 책을 펴내고 있는 이전투구는 이제 끝내야 한다. 과학의 이웃사촌인 공학으로 시선을 돌리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기획할 수 있을 터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에

서는 총선 뒤에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 부흥리'를 두고 기술입국에 매진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기술입국의 핵심이 공학기술인 것을.

교양공학 도서의 대중화가 요구되는 두 번째 이유는 페트로스키의 입을 빌리기로 한다.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에서 그는 자동차,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이런 모든 것들은 공학설계, 제조, 시공의 결과로 생겨난 물건들"이며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상은 공학과 기술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298쪽).

페트로스키는 《인간과 공학 이야기》에서 "공학이란 창조적이며 분석적인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예술과 과학이 가진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117쪽)고 말하면서 공학자(엔지니어)를 한편으로는 예술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에 비유한다.

이 책에서 페트로스키는 광산 엔지니어 출신으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버의 말을 인용한다. 후버는 "엔지니어는 위대한 직업이다. 공학은 돈, 금속, 에너지를 쓸모 있게 한다. 게다가 공학은 사람들에게 직업과 집을 제공한다. 또한 공학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삶을 안락하게 만든다. 이는 엔지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288쪽)라고 말한다.

그렇다. 엔지니어는 "의사가 하는 일과는 달리 자기 실수를 무덤에 묻어 버릴 수 없고, 변호사가 재판에 진 뒤에 하듯이 판사를 비난할 수도 없으며, 정치가처럼 상대방을 비난하여 자기 약점을 가리거나, 사람들이 잊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존재로서 "하루 종일 계산을 하고도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깨어나



이 글을 쓴 이인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했다.
1992년 월간 <정보기술> 발행인을 역임한 뒤
1995년부터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동아일보> <한겨레> <주간동아>

<월간조선> <과학동아> 등 여러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테크 혁명> <사람과 컴퓨터>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이란 무엇인가>
<제2의 창세기>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아주 특별한 과학에세이> 등이 있다.

아침에 깨고서 보면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는 계산을 하기도 한다” (289쪽).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일수록 페트로스키가 엔지니어를 묘사한 대목을 읽으면서 출세 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치닫는 부박한 세대에 모멸감을 느낄 터이다. 우수한 엔지니어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어쩌면 한국이 1만 달러에 주저앉는 이류국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페트로스키의 책을 읽은 독자라면 내가 왜 교양공학 도서와 공학 대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그 까닭을 짐작했을 줄로 안다.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책들이 널려 있는 우리나라 과학 도서 시장이 공학 책으로 판갈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인간과 공학 이야기>는 '실패학'의 훌륭한 교과서이다. 여담이지만 <동아일보>의 '이인식의 과학생각' 칼럼에 국내 최초로 실패학을 소개(2000년 10월 26일자)하면서 이 책을 언급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다. 그 당시 이 책의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공학 대중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이 해동전자기술진흥재단(김정식 이사장)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 시리즈는 실로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라고 아니할 수 없다. 1차년도에는 김영사가 9종의 책을 펴냈지만 2차년도부터는 생각의나무가 뒤를 이어 국내 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교양공학 도서를 만들고 있다. 예컨대 <공학기술 복합시대>(2003년)에는 이기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서울대학교 총장 역임)을 비롯해 일곱 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책의 필자들 역시 페트로스키처럼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일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휴대전화가 불통된다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수돗물의 공급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공학기술인들이 이루어 낸 업적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머리말)라고.

21세기 공학기술의 추세인 퓨전fusion, 곧 융합에 대해 이만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학의 최전선에서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쪼개 공학 대중화를 위해 <공학기술 복합시대>를 집필한 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공학 대중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다. '공학과와 새로운 만남' 시리즈처럼 교양공학 도서를 기획하는 출판사가 늘어나서 많은 독자들이 공학기술과 엔지니어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서점에 교양과학 책보다 교양공학 책이 더 많이 진열되는 날, 비로소 우리는 2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홍준**

